

탄소중립 급한데 역행하는 한전 발전공기업들

화석에너지 24조 2556억 투자... 석탄발전소 연료 LNG 전환 집중 신재생에너지 4조 7379억원 투자 계획 부실... 화석 연료 20% 불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국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나서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5곳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이 화석에너지 대비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는커녕 화석에너지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서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5곳의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석

탄과 LNG 등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보강에 24조25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4조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는 예산은 화석에너지의 20%에 불과한 것이다. 발전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서부발전(화석에너지사업 4조9872억원·신재생에너지사업 8970억원) ▲동서발전(화석에너지 4조3875억원·신재생에너지 1조9628억원) ▲남동발전(화석에너지

5조2503억원·신재생에너지 6805억원) ▲중부발전(화석에너지 3조9169억원·신재생에너지 7594억원) ▲남부발전(화석에너지 5조7237억원·신재생에너지 4382억원)이다. 이들 기업의 앞으로 5년 간의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공기업 대부분은 기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양력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부실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27년 이후, 남동발전은 2025년과 2026년, 남부발전은 2026년과 2027년 태양광 투자계획이 전혀 없다. 현재 이들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상황 역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자사 전체 발전설비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서부발전이 5.1%, 동서발전이 1.6%, 중부발전이 1%, 남부발전이 3.2%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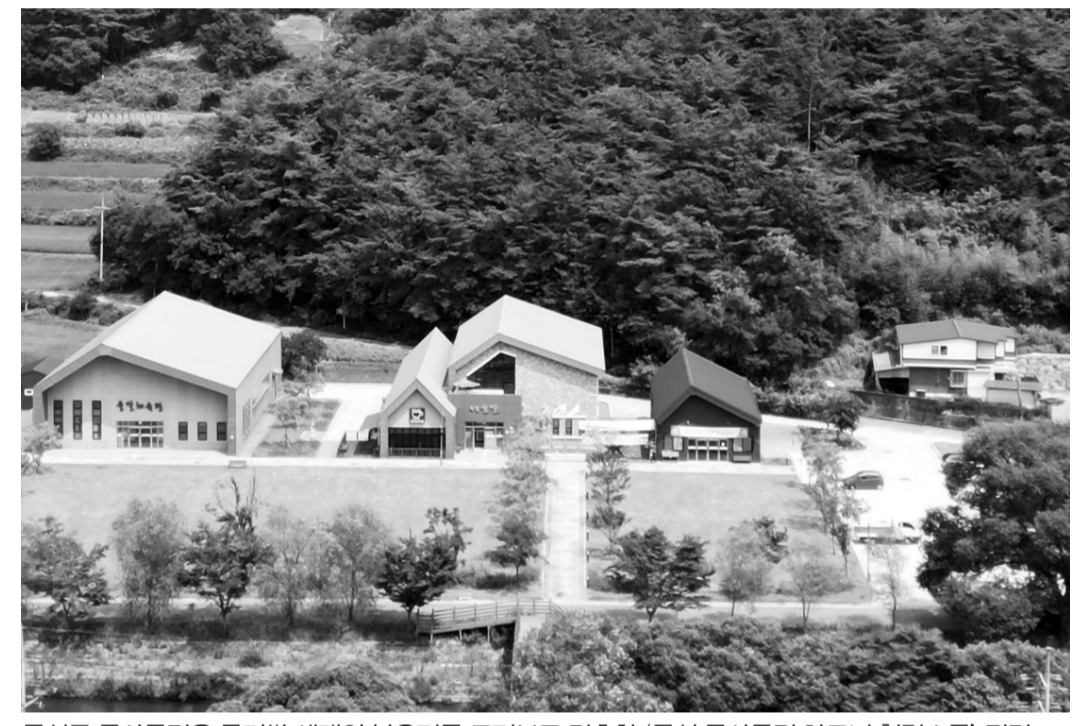
1%대인 곳이 두 곳인데다 남동발전(12.4%)을 제외하면 평균 2.7%였다. 이들 기업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기준 2488MW로 국가 전체 발전설비용량 13만8018MW의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를 45.9%까지 감축하기로 했지만, 발전공기업의 행보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김용민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현장중심 안전문화 정착 공기업 안전경영 선도 나선다

한국전력공사는 10일 안전경영 체계를 정립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경영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전은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감사원칙을 세우고,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감사실 내에 안전컨설팅 전담부서인 미래혁신감사부를 신설했다. 미래혁신감사부는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고령·일용·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22개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업무 분야별로 8명의 전문가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와 축적된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수산물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
지난 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본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수산물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춘진 aT 시장과 청미래포럼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증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점검하고, 먹거리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농수산물산업의 혁신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aT 제공)



곡성군 목사동면을 둘러싼 세계의 봉우리를 모티브로 건축한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심각

김한정의원 국감서 지적 '尹정부 비전문가 쫓아... 낙하산 끝판왕'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다수 에너지 공기업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 이거나, 여권과 인연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경영진과 감사 등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거론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

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김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낯도 두껍다. 낙하산 끝판왕 정권"이라며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위기와 아무 상관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낙하산도 안 매어주고 마구 쫓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에 비전문가들을 쫓으면 그 자리에 앉는 분은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들은 춥다. 겨울이 추워진다"며 "대한석탄공사에는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출신이(상임감사로) 임명됐다"고 했다. 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지검, 중앙지검, 검찰총장 시절까지 데리고 다닌 최측근 중 한 분은 가스공사 감사로 임명됐다"며 "검찰청에서 평생 지낸 공무원이 가스공사와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감사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추천됐다고 본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장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가스공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에너지와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쏘아붙였다. /연남뉴스

농어촌공사,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 수상

'하모니 힐링스쿨' 고령화 대비한 건축·공간 제공 공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에서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이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커뮤니티 시설인 곡성군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 조성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유니버설디자인 건축·공간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은 1999년 폐교돼 방치되던 평호초등학교와 그 부지를 목사동면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중심 커뮤니티 시설로 재탄생한 공간이다.

목사동면을 둘러싼 세계의 봉우리를 모티브로 건축물 지붕 형상을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며, BF 인중 취득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내외부 단차가 없이 드나들기 편리한 들말센터(프로그램실, 카페 등), 들말체육관, 급식실, 야영장 등으로 시설물이 구성됐다. 이병호 사장은 "하모니 힐링스쿨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촌 마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산어촌 공간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